

책읽기와 삶의 변화

양희규

간디학교 교장

나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다. 대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면 많은 시간을 들여 정독하는 편인데, 진정 탁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두번, 세번, 어떤 경우에는 열번도 더 읽는다. 그것도 그냥 눈으로만 읽지 않는다. 훌륭한 강의를 들을 때처럼 저자의 이야기에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펜을 들고 감동이 오는 구절에 별표를 표시하고 의문이 가는 곳에는 물음표를 그리며, 저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는 삼각부호를 표시하고 내 의견을 책 여백에 써 넣기도 한다. 열번 이상 읽은 내 책 《간디의 자서전》에는 온갖 종류의 부호와 소감이 적혀 있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다. 배우고 성장은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간디의 자서전》을 읽은 85년 무렵, '소박한 삶, 공동체적 삶'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하루 적어도 몇 시간은 노동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책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되어 주었다. 93년 가을, 박사학위 논문제출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약 3개월간 홀로 산 속에 머물고 있었을 때, 소로우의 책 《월든》은 '나의 길'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소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속된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소로우의 이야기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고, 나는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따라 농촌 정착을 결정했다. 유학을 마치고 94년말 귀국, 나는 경남 산청 골짜기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녹색평론》의 글들은 간디학교를 열게 한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특히 사티쉬 쿠마르의 "어둠을 한탄하기보다는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는 말은 나와 간디학교 식구들의 삶의 지침이다. 얼마전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읽고 또 읽고 나서는 99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 첫째가 내가 주로 먹는 채소를 가꾸자는 것이고, 둘째는 조그만 오두막 한채를 짓자는 것이다.

요즘 자연이나 환경 혹은 귀농에 관한 책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종류의 책들 속에 나타난 공통된 가르침을 나는 '자연과 조화된 소박한 삶은 결코 찌든 삶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삶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개인적 삶 속에서뿐 아니라 내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텃밭도 일구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집 짓기도 하게 한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소박한 삶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모두들 어렵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기회라고 믿고 있다. 좋은 책을 통해, 자연과 벗하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개인의 삶과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일 것이다. ❖

표지 인터뷰	2	'통일'을 향한 한 역사학자의 도전 《20세기 우리의 역사》·《희상의 열차를 타고》 펴낸 강만길씨
특집/자연을 그리는 시대	4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또다른 세계' 5 초보 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6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책이야기 천규석/강문필/채규철/박남정
특별 앙케트	8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책 중고생 - 서재환/김경옥/원종찬/홍순명/허병두/이성원 대학생 - 조유전/김정길/오미영/김진애/주강현/ 유시민/김동광/홍진희/김기협
출판취재	12	일본 지성의 세계를 열어본다 근대성 탐구에서 한일간 의제 비판까지 14 고대 문명의 세계에서 엿보는 우리의 미래
만화	13	책과 오과장 - 박시백
신간읽기	15	무라사키 시키부 《겐지이야기》(전3권) 16 뉴턴 《프린시피아》(전3권)
문학서론	17	불황기, 왜 환타지 소설인가 - 백지연
기획연재	18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 - 홍원식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 ② 한국철학편
책읽피 산책	19	서지문 《어리석음을 탐하며》를 읽고 - 김정란
마케팅 캠프	20	사회변동은 새로운 마케팅의 기회다 - 한기호
출판광고 클리닉	21	좋은 책으로 돈 안드는 퍼블리시티 효과 - 마정미
해외서점 탐방	22	'진짜 사람들'과 책이 어우러지는 문화시장 - 최연구 포트 방브 벼룩시장의 중고서적상
이 책 그사람	24	《황하에서 천산까지》 펴낸 김호동씨 《빈들에 나무를 심다》 펴낸 박광숙씨 25 《서울에 판스출을 허하라》 펴낸 김진송씨 《개미제국의 발견》 펴낸 최재천씨
서평	26	김원모 《한미수교사》 - 한철호 역사문제연구소 외 《제주 4·3연구》 - 강정구 27 김영명 《고쳐 쓴 한국 현대 정치사》 - 조현연 28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홍성민 한케 외 《유로화의 도전》 - 이용기
종합서평	30	최수철·김영현·최인석의 소설집 - 최성실
	32	새책 속으로 / 34 새로 나온 책 / 48 독서피플
		표지 사진/한준호